

# ‘산후조리원’ 박하선 “2년간 육아 경험 ‘은정’에 공감”

4년 공백 무색 베테랑맘 ‘조은정’ 역 호평

극중 무심한 남편과 달리 류수영은 다정

“서양화가 ‘나혜석’역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완모도 해봤고 혼합도 해봤다. 육아 서적도 10권 이상 읽었고 실제 ‘육아 만렙’ 은정이처럼 육아에 대한 정보가 많고 진짜 조리원 내 ‘핵인싸’라는 말도 들었었다.”

지난달 24일 종영한 tvN 월화극 ‘산후조리원’에 출연한 배우 박하선은 최근 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은정과 결도 다르고 그만큼의 노력에는 못 미치지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점이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생 캐릭터 만나…시즌2 꼭 했으면”

‘산후조리원’에서 박하선은 조리원 서열 1위이자 베테랑맘 ‘조은정’으로 분했다.

그는 “좋은 평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대본, 연출, 배우, 제작진 모두 완벽한 작품에 함께 해서 영광이었다”며 “너무 아쉬워서 시즌2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채로운 장르적 묘미가 담긴 ‘산후조리원’에서 박하선의 캐릭터 소화력과 존재감을 빛을 발했다.

코믹한 패러디 신에서는 망가짐을 불사하는 열연으로 큰 웃음을, 애잔한 감성 신에서는 섬세한 내면 연기로 가슴 뭉클한 감동과 위로를 전달했다.

그는 “나는 여왕벌이다. 나는 최고다” 생각을 많이 하며 연기했다”며 “조

은정은 우아하고 도도하면서도 웃기고 잔하고 귀엽고 슬프고 여러 가지 매력과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복합적이고 버라이어티한 저의 인생 캐릭터”라고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자신도 육아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은정과 공감도 많이 했다. “2년간 육아하면서 오로지 아이를 위해 은정이처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은정이처럼 캐릭터 도시락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는 따라갈 수 없다.”

극중 은정이 너무 모유만 고집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모유가 사실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보통은 많이 먹이기 힘들다”며 “너무 모유만을 고집하면 아이도 엄마도 힘들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쉽진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엄마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공감이 쉽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은정이가 마지막에 할 말도 하고 달라져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조은정의 화려한 비주얼은 또 다른 볼거리였다.

박하선은 “조은정은 대본에 ‘플레이크업에 진주 귀걸이를 한’이라는 지문이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인물”이라며 “데뷔 이래 처음으로 꾸밀 수 있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조리원 복장 안에서 최대한 캐릭터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명품 스킨케어 레이스 케이크, 수면 양말, 내복, 아

대 등 직접 사비로 소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노윤호의 열혈팬으로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 노래에 춤을 출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뭘든 요청해 주면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좋아하는 아이들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여자친구, 트와이스 등을 꼽았다.

“류수영과 생활비·살림 반씩…서운한 점 없어”

극중 남편 정성일은 무뎠고 무심한 캐릭터였다. 실제 남편 류수영은 어떨까.

박하선은 “남편은 내가 출연한 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미있어하고 너무 웃더라. ‘며느라기’를 보고는 내게 더 잘해주기도 했다. 진짜 교육 드라마”라고 웃었다.

그는 “남편이 요리를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한끼씩 번갈아 가며 요리를 해왔다. 그게 너무 좋았다”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저희가 신혼집을 반반 부담했었는데 둘 다 벌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도, 살림도 반반 나눠서 하고 있다”며 “저희는 분담이 잘 되어있는 가정이라 특별히 서운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딸에게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는 “아이가 제게는 뭘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아이와 뭘든 동행해 줄 수 있는 엄마, 편하고 어렵지 않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단 둘째 계획에 대해서는 “둘째는 첫째만도 벅찬 상황이고 일이 많아 현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TV 드라마 ‘며느라기’에서 ‘민사립’도 찰떡 소화 중이다. 그는 “사실 남편과 시댁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남”이라며 “원래 같이 사는 가족들과 안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갈등이 없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시작을 남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남인데 나한테 되게 잘해주네”라고 생각하면 항상 고맙고 ‘남이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덜 서운하다. 지금 저희 시부모님은 제 일을 너무 좋아해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주신다.”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씨네타운 등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결혼 이후부터 도합 4년을 쉬었다. 지금 열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요즘은 촬영 현장이 많이 개선돼서 여러가지 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딸이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어서 너무 뿌듯하다”며 “가족들이 본인들 일만큼 좋아해 줘서 그게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육아하며 4년 공백…가장 값진 일이라 다행”

공백기에 대해 “4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일을 하고 있어’, ‘값진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며 버텼다”며 “그 시간들 동안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봤고 그런 시간들이 약이 됐다.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하려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건가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포부도 전했다. “저는 이성적인 면이 있어서 장르물이 잘 맞다



고 생각한다. 또 액션도 더 해보고 싶고 사극, 시대물도 도전해 보고 싶다”며 “국내 첫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이라는 역사적 인물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역사상 최초로 이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 여류 화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의사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연기해 보고

싶다”고 했다.

“배우로서 계속 쉬지 않고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박하선’이 연기하는 건 다 재미있더라”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믿고 보는 배우, 다음이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 해외 진출에 대한 꿈도 꾸고 있다.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싶다.”

## 극장가 ‘12월 셋다운’…‘서복’ 등 개봉 연기·일정 취소 잇따라

픽사 애니 ‘소울’ 시사회 일정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공유·박보검 주연의 영화 ‘서복’이 결국 올해 개봉을 포기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 예정이었던 ‘서복’ 개봉을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영화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 ‘서복’(박보검)을 큐비리에 옮기는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이 ‘서복’

을 노리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특별한 동행을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건축학개론’의 이우주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이라는 소재와 공유·박보검 캐스팅으로 연말 기대작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취소와 개봉 연기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개봉 예정인 디즈니·픽사의

‘소울’은 9일 예정된 언론배급시사회를 늦추기로 했다. 영화 ‘걸’은 당초 17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2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언론배급시사회도 취소했다.

류승룡·염정아의 뮤지컬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유연석·이연희의 로맨스영화 ‘새해전야’ 등도 12월 개봉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0일 개봉을 예고한 한지민·남주혁 주연의 ‘조제’는 일정 변동 없이 예정대로 선보인다는 입장이다.

## 라디, 아티스트 활동 잠정 중단…“프로듀서 활동 등 집중”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있으면 다시 마이크잡겠다”

싱어송라이터 라디(Ra.D)가 아티스트 활동을 중단한다.

7일 소속사 리얼플라보 측은 “라디가 오는 15일 베스트 앨범인 ‘Ra.D’를 기점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라디도 이날 소속사를 통해 “아티스트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보컬 및 세션 디렉터, 녹음 및 믹스 엔지니어, 프로듀서 및 편곡가의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추후 ‘아임 인 러

브(I'm in love)’나 ‘엄마’와 같은 나를 온전히 담은, 내가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다시 마이크를 잡겠다”고 전했다.

지난 1997년 비트메이커 겸 레퍼로 대중을 만난 라디는 2002년 1집 ‘마이네임 이즈 라디(My Name Is Ra.D)’로 정식 데뷔했다.

약 18년간 세 장의 정규앨범 및 다수 싱글을 제작했으며, ‘남자친구’와 ‘질투의 화신’ 등 드라마 OST 앨범에



도 참여했다.

또 음악 레이블 리얼플라보를 결성해 브라더스와 디어, 주영, 치즈, 러비, 시애나 등 신인들을 발굴했고, 아이유와 2PM, 권진아, 나르샤, 가인, 제아 등 가수들의 앨범 프로듀싱에도 힘을 보탰다.

## ‘미스트롯2’, 최종 합격자 121명 프로필 공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 최종 합격자 121명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미스트롯2’ 제작진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총 112명, 121인의 참가자 프로필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프로필에는 역대급 경쟁률을 뚫은 참가자들이 ‘미스트롯’ 시리즈

의 시그니처 색이자 도전 정신과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색 드레스를 갖춰 입고 각자 개성을 살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과감한 의상을 입고 강렬한 눈빛을 발산하는가 하면, 우승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듯 카메라를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파이팅을 외치

고 있다. 또한 깜찍한 눈웃음과 사랑의 하트 자세를 취하는 등 전자만발한 개성을 드러낸 참가자들도 있다.

제작진은 이날 “이번 시즌에는 유독 넘치는 개성, 끼와 실력, 그리고 외모까지 두루 갖춘 참가자가 많았다”며 “그래서 더욱 최종 엔트리를 선발하기가 힘들었던 시즌이었다”고 밝혔다.

## 엑소 시우민, 12일 ‘네이버 V 라이브’

전역 후 처음 팬들과 만나는 자리

그룹 ‘엑소(EXO)’의 시우민이 전역을 기념해 특별한 생방송을 펼친다.

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시우민은 오는 12일 오후 7시부터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 엑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 ‘시우민의 렛잇스노우(XIUMIN’s Let It XIUnow)’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방송은 시우민이 전역 후

처음 팬들과 만나는 자리다. 솔로곡 ‘이유(You)’ 가장부터 미니 게임, 근황 토크 등 시우민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코너들로 구성된다.

시우민은 지난해 5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는 말년 휴가를 보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일 미복귀 전역했다.



## 방탄소년단, 2년 연속 ‘MAMA’ 대상 4개 싹쓸이

8관왕 달성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국내 최대 음악 시상식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MAMA)에서 2년 연속 4개 대상을 싹쓸이했다.

방탄소년단은 6일 오후 CJ ENM이 연 음악 시상식 ‘2020 MAMA’에서 ‘올

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월드와이드 아이콘’ 등 대상 4개를 모두 가져갔다.

방탄소년단은 작년 이 시상식에서도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월드와이드 아이콘 등 대상을 모두 따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상식에서는 4개의 대상 외에도 ‘월드와이드 팬스 초

이스 톱10’ ‘베스트 남자 그룹’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그룹’ ‘베스트 뮤직비디오’도 차지하며 8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MAMA’는 저희가 신인일 때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시상식이었다. 그 만큼 너무 오고 싶었고 시상했는데 큰 상을 연속으로 받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 백지영, 전국투어 취소…코로나 재확산 여파

이전 전국 투어 티켓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될 예정

가수 백지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

7일 소속사 트라이어스에 따르면, 백지영은 지난 5일 부산부터 광주, 서울, 성남, 일산 등에서 ‘2020-21 전국투어 콘서트-백지영(BAEK-HUG)’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한다.

트라이어스는 “철저한 방역,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콘서트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지영은 소셜 미디어에 “스테

프와 관객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 중이다. 예정된 날짜에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전 전국 투어 티켓은 콘서트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막고자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한다.